

This file has been cleaned of potential threats.

If you confirm that the file is coming from a trusted source, you can send the following SHA-256 hash value to your admin for the original file.

9a11691ff199eaf66a2add860ef3a5ed6bd508c5a09cdcd640089cb63ab83d24

To view the reconstructed contents, please SCROLL DOWN to next page.

- 주요 뉴스: 아시아 8월 제조업 부진, 글로벌 물가상승과 역내 경기회복 둔화를 초래할 우려
 - 미국 8월 ADP 민간고용, 37.4만명 증가로 예상치(61.3만명) 큰 폭 하회
 - ECB 총재, 유로존 경제는 회복되고 있으며 특정 분야에 대한 맞춤형 지원만 필요
 - 독일 중앙은행 총재, 유로존 인플레이션은 ECB의 인식보다 위험한 상황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저조한 8월 민간고용에 따른 통화정책 정상화 지연 기대 등이 영향
 - 주가 보합[+0.03%], 달러화 약세[-0.1%], 금리 하락[-2bp]
 - 주가: 미국 S&P500 지수는 양호한 제조업 PMI와 고용지표 부진 등이 엇갈리며 보합
유로 Stoxx 600 지수는 7월 실업률 하락에 따른 소비관련주 강세로 0.5%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한 8월 민간고용 등이 반영
유로화 가치는 0.3% 상승, 엔화는 보합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금주 발표될 8월 고용 통계의 부진 가능성 등이 배경
독일은 ECB 주요 인사의 매파적 발언 등으로 6주 만에 최고치

※ 원/달러 1M NDF환율(1156.7원, -1.1원) 0.1% 하락, 한국 CDS 보합

		9/1일	8/31일	전일대비			9/1일	8/31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4,524.1	4,522.7	0.03%	국채 금리 10y	미국	1.29%	1.31%	-2bp
	유럽	473.12	470.88	0.48%		독일	-0.37%	-0.38%	1bp
	중국	3,567.1	3,543.9	0.65%	CDS 5y	한국	18bp	18bp	0bp
	일본	28,451	28,090	1.29%		중국	32bp	32bp	0bp
	한국	3,207.0	3,199.3	0.24%	위험 지표	EMBI+	-	350	-
환율	달러지수	92.52	92.63	-0.12%		VIX	16.11	16.48	-2.25%
	유로화	1.1839	1.1809	0.25%		WTI유	68.59	68.50	0.13%
	엔화	110.01	110.02	0.01%	원자재	구리	426.9	436.0	-2.10%
	위안화	6.4599	6.4607	0.01%		금	1,813.9	1,813.6	0.02%
	원화	1,157.2	1,159.5	0.20%					

주: 주가는 미국 S&P500, 유럽 Stoxx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 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아시아 8월 제조업 부진, 글로벌 물가상승과 역내 경기회복 둔화를 초래할 우려

- 중국 8월 차이신 제조업 PMI는 49.2를 나타내 작년 4월 이후 처음으로 50을 하회. 동남아 주요 7개국의 마킷 제조업 PMI도 3개월째 하락세. 이는 코로나 19에 따른 제한 조치, 원자재 가격 상승, 일부 주요 항만의 정상 가동 차질 등에 기인
- 이러한 상황은 반도체 등 세계적으로 의존도가 높은 제품의 원활한 공급을 어렵게 만들면서 물가상승 압력 요인으로 작용. 특히 동남아 지역은 세계의 주요 전자제품과 자동차 등의 생산에서 중간재 공급의 역할이 매우 큰 편
- 또한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은 자국 경제에서 제조업 비중이 높기 때문에, 경기회복도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 Capital Economics의 Alex Holmes는 이러한 문제가 단기간 내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8월 ADP 민간고용, 37.4만명 증가로 예상치(61.3만명) 큰 폭 하회

- 다만 이번 결과는 전월(32.6만명)에 비해 증가. 한편 이번 주말 발표될 8월 고용통계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많은데, 시장에서는 8월 비농업 신규 고용건수가 75만건을 기록하여 전월(94만건)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

■ ECB 총재, 유로존 경제는 회복되고 있으며 특정 분야에 대한 맞춤형 지원만 필요

- 라가르드 총재는 코로나 19에 직면하여 그 동안 효과적으로 통화정책을 시행했지만, 여전히 주의해야 할 위험 요인들이 존재한다고 발언. 다만, 과거와 같이 대규모의 경기부양책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 피력
- 데 퀴도스 부총재는 유로존 경제성장률이 당초 ECB의 전망치를 상회하고 있기에 향후 통화정책도 이러한 상황을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 경제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이 상승한다면 당연히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정상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부연

■ 유럽증권시장감독국(ESMA), 주요 금융자산의 조정 가능성을 대비할 필요

- 코로나 19 이후 대규모 경기부양책 등으로 주식, 회사채, 암호화폐 등 주요 금융자산의 가격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코로나 19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고 분석

■ 독일 중앙은행 총재, 유로존 인플레이션은 ECB의 인식보다 위험한 상황

- 바이트만 총재는 일시적으로 물가상승을 유도했던 요인들이 만성적인 요인들로 바뀔 수 있다고 경고. 아직까지는 ECB가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자산매입의 종료를 대비할 필요도 있다고 첨언
- 반면 그리스 중앙은행 스투나라스 총재는 8월 소비자물가의 큰 폭 상승이 일시적 현상이라고 평가. 또한 근원 인플레이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임금 등은 인플레이션과 동일한 변동성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고 분석

■ 일본은행 부총재, 통화정책의 조기 긴축전환 위험성을 경고

- 와키타베 마사즈미 부총재는 경기부양을 조기에 종료하는 오판을 피해야 하며, 코로나 19 관련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경기가 악화되면 언제라도 통화정책을 통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

■ OPEC+, 현행 공급계획을 유지. 2022년 원유수요 전망은 상향 조정

- 월간 원유생산 수준을 매월 일일 40만배럴 확대한다는 기존 계획을 유지하기로 결정. 한편, 합동기술위원회(JTC)는 2022년 수요 예측을 일일 328만배럴 증가에서 420만배럴 증가로 변경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9/1 현지시각 기준)

- 미국 8월 ADP 민간고용(만건): 37.4, 7월(32.6), 예상치(61.3)
- 미국 7월 건설지출(전월비): 0.3%, 6월(0.0%), 예상치(0.2%)
- 미국 8월 마켓 제조업 PMI(확정치): 61.1, 7월(63.4), 예상치(61.2)
- 유로존 8월 마켓 제조업 PMI(확정치): 61.4, 7월(62.8), 속보치(61.5)
- 유로존 7월 실업률: 7.6%, 6월(7.7%), 예상치(7.6%)
- 독일 7월 소매매출(전년동월비): -0.3%, 6월(6.5%), 예상치(3.7%)

■ 주요 경제 이벤트(9/2 현지시각 기준)

- 미국 7월 무역수지, 8월 4주차 신규실업급여청구건수
- 미국 7월 제조업수주, 유로존 7월 생산자물가, 호주 7월 무역수지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중국 경제, 산업화로 인한 전세계 성장 동력원으로서의 위상 상실 - Financial Times

(China's changing role in the world economy)

- 과거 중국 정부의 부양책으로 인한 산업화와 빠른 경제성장은 2008년 금융위기 회복에 큰 도움. 아울러 작년 주요국 중 유일하게 성장을 이룬 원동력. 하지만 델타 변이 및 공급망 우려 등으로 나타난 최근 경제지표 악화는 중국 경제 둔화를 반영
- 중국정부는 예전의 성장 우선이 아닌 부동산 부채 제한, 기술기업 규제, 불평등 차단, 가계·기업 부채 우려 해소 노력 등으로 정책 노선을 변경. 이에 따라 중국 경제의 초고속 성장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경제 기여도도 줄어듦 전망

■ 인플레이션 압력 제어, 물가목표 상향을 검토할 필요 - WSJ

(How to Deal With Above-Target Inflation: Raise the Target)

- 실질적으로 물가목표를 높이는 편익은 금리인상으로 인한 고용불안 등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 뉴질랜드 중앙은행이 2%의 물가목표제를 도입한 이후 인플레이션은 금리와 동조화. 명목금리 하락은 경기침체 시 인하 여력 악화로 연결
- 일각에서는 호주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경기가 부진하고 금리가 낮은 수준에 머물 경우에 물가목표치 상향이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했다고 제시. 인플레이션 압력이 일시적이지 않으면, 물가목표치 상향의 편익을 재점검할 시점

■ 미국 물가상승 압력, 저가제품 판매점에 딜레마를 부여 - Financial Times

(Inflation puts pressure on America's fast-expanding dollar stores)

■ 연준의 테이퍼링과 금리인상 분리 시도, ECB는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 - 블룸버그

(The ECB Should Take a Page From the Fed's Playbook)

■ 바이든, 동맹국 신뢰 회복을 위해 아프리카와 관계 재편이 요구 - Financial Times

(Joe Biden has a chance to reshape America's relationship with Africa)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228, E-mail ikyoon@kcif.or.kr